



# ( 미술, 장르의 경계에서 책을 만나다 )

지난 9월 19일부터 오는 10월 26일까지 삼청동 갤러리 팩토리 Factory(www.factory483.org)에서 '북아트 쇼 Book Arts Show'가 열리고 있다.

이번 전시회에서는 유럽, 홍보람, 채순섭 등 총 14명의 작가가 참여해 책이라는 공통의 형식을 바탕으로 사각형에서 벗어난 구 모양의 책이나 책장을 넘길 수 없는 책, 텍스트는 사라지고 이미지만 남은 책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여 가을 산책길에 나선 시민들의 호기심 어린 눈길을 끌었다.

전시를 기획한 곽현정 씨는 “가능한 모든 형식을 실험하고자 하는 북아트를 지금 한 마디로 설명하는 것은 어렵다”며 “하지만 북아트의 가장 큰 특징이자 매력은 사람들에게 친숙한 책의 모티프를 빌려와 어떤 주제나 형식으로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점”이라고 이번 북아트 쇼의 의미를 설명했다. 책이 가진 형식의 유연성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엄격하게 구분되어 왔던 여러 장르들의 접점에서 그 무한한 가능성을 실험하며, 예술에 대한 다양성의 저변을 넓혀갈 수 있다는 것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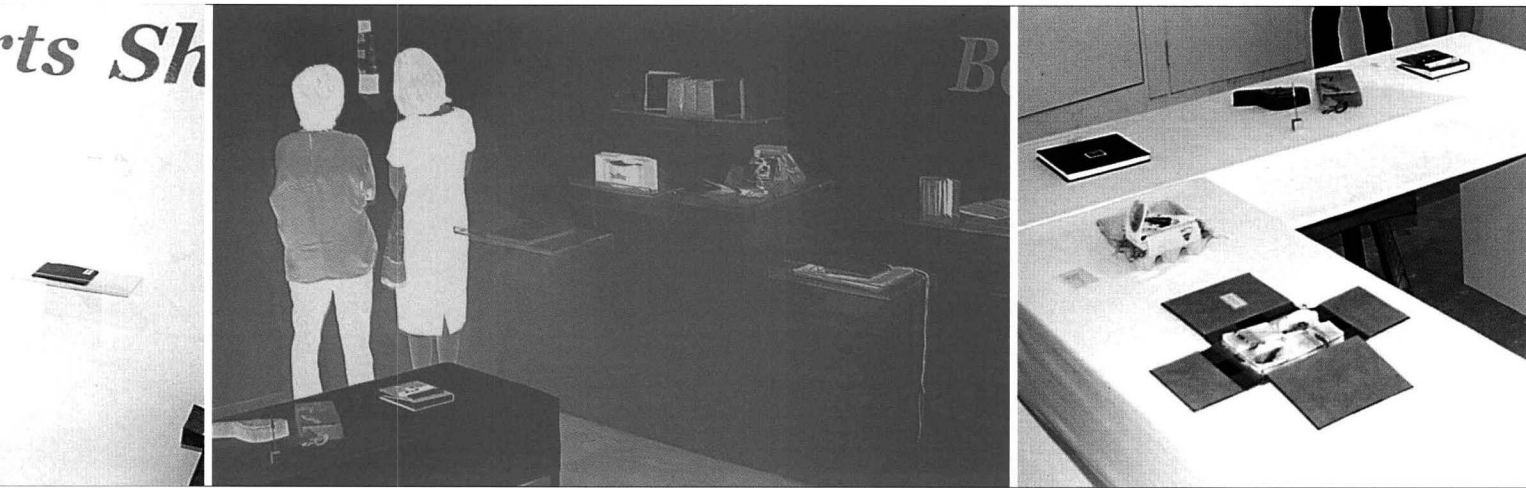
북아트는 현재 책의 형식을 취한 시각미술 작품을 총칭하는

용어로 쓰인다. 1973년 필라델피아의 무어미술대학교에서 '미술가들의 책 Artists Books'이라는 전시회가 열렸고, 같은 해 뉴욕 근대미술관의 사서였던 클라이브 필포트 Clive Philpott가 《스튜디오 인터내셔널 Studio International》의 칼럼에서 '북아트'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것이 계기가 된 것.

우리나라에서는 지난 5월 《북아트 | 아름다운 책 만들기》를 낸 바 있는 김나래 씨 등과 같이 북아트의 본거지인 유럽과 미국에서 공부를 한 디자이너들이 국내에 본격적으로 북아트의 개념을 도입했다. 현재 북아트에 관한 다양한 워크숍, 강의, 전시 등을 통해 예술가, 디자이너들을 비롯하여 일반인들에게까지 높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.

## 작품소개

유럽 <Five Boxes> 다섯 개의 조그만 상자들은 각각 책의 특성과 연관된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. 예를 들면, 첫번째 상자에 들어 있는 활자들은 인쇄되기 전의 책의 상태를, 두 번째 상자 안의 연필들은 책의 내용을 만들어가는 사색의 과정을 의미한다.



유림 <Five Boxes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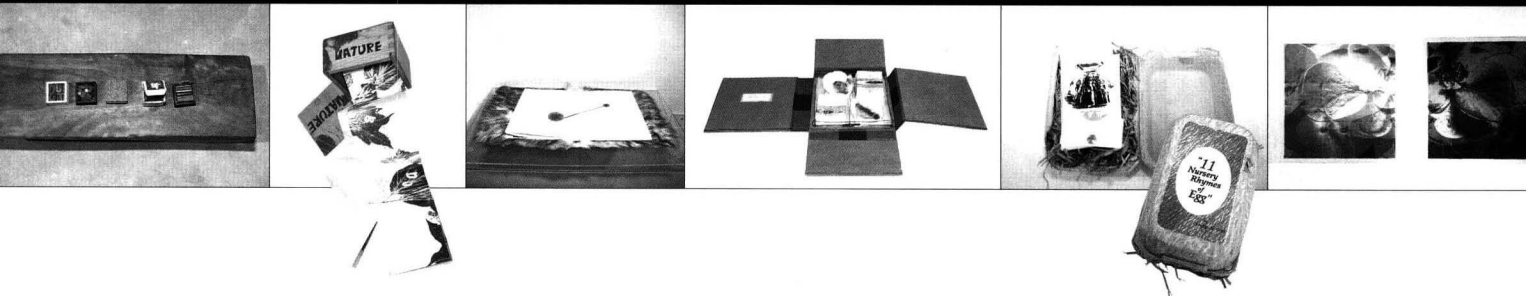
현경원 <Nature>

홍보람 <Mind Power>

곽나실 <Interspace>

최영주 <Nursery Rhymes of Egg>

장양희 <수국>



다른 상자들 안의 책들 속에는 작가의 개인적인 추억이 담겨 있다.

현경원 <Nature> 지금은 중학생이 된 작가의 아들이 어릴 적 가지고 놀던 장난감 상자를 이용한 작품. 상자로부터 펼쳐진 나뭇잎, 수국, 개미 등이 프린트된 접힌 구조의 종이들은 작가가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이름답고 소중한 자연의 이미지를 드러낸다.

홍보람 <Mind Power> 두 사람의 인물 이미지와 인주, 실 등으로 만든 추상적인 이미지들이 페이지를 번갈아 가며 등장하는 이 작품은 사람들 사이의 유대감이 생겨나는 순간과 그 유대감이 발전해 나가는 과정의 느낌을 표현하고 있다.

곽나실 <Interspace> 책 속의 드러나지 않는 행간의 의미를 역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나무의 나이테를 모티브로 삼아 표현하였다. 한지에 프린트된 나이테의 이미지는 이처럼 책을 통해 쌓여진 생각의 층들을 의미한다.

최영주 <Nursery Rhymes of Egg> 영국의 전래동요 중에서 달걀에 대한 노래들을 에그 컵egg cup과 연결시켜 만든 책이다. 요즘은 식탁에서 잘 사용되지 않는 egg cup의 이미지와 옛 동요가 결합된 이 작품은 영국 수집가들로부터 묘한 향수를 불러

일으킨다는 평을 받았다.

장양희 <수국> 책 오브제라는 개념 자체는 판화와 무관할 수 없는 프로세스적 속성을 내재하고 있다. 그러한 책 오브제의 속성에 주목하여 책의 형태와 판화의 개념을 결합한 작업이다.

이 외에도 유림의 <곤충채집>, 채순섭의 <Iron Book Art-H>, <Iron Book Art-The>, 이난규의 <강에서> <휴休>, 정희경의 <달팽이> <말차>, 박영심 <일곱날> <Rise of Forgotten Things> 김소희 <그곳>, 이명선 <소통> 등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. ☞

취재 신동섭 기자 · 사진 박신우 기자

